■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전통예술 분야) 3차 실연심의 회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전통예술 분야) 3차 실연심의 ㅇ 회의일시 : 2025년 4월 9일(수) ~ 4월 11일(금) 10:30~16:00 ㅇ 회의장소 :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은아, 소경진, 오영주, 유민희, 윤중강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대한민국의 공연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사업으로 정착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겠지만, 특히 '전통예술'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그간 21세기의 전통예술을 전향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연심의에 참여한 여덟 작품은 모두 우수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공연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모든 작품이 저마다 개성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전통예술의 외연을 넓히게 되는 '전통의 확장성'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작품이었습니다. 여덟 작품 중에서 최종 다섯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두 개성이 있는 작품이고, 그 작품이 공연된 이후 대한민국 공연 문화에 끼칠 영향력을 품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올해의신작'이라는 해당 사업의 취지와 연관해서, 심의기준을 확실히 해야만 했습니다. 전체의 작품을 2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보여준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참여하는 팀의 이런 고충을 인식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는 창작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고,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뷰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과정에서 각 팀의 대표자(참여자)들이 모두 작품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공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심의기준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창작산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공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연예술 작품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가 작품을 보면서 '전통의 가치'와 '전통의 확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이러한 자세로 심의에 임했습니다. 모든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의했으나, '창작산실'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함에는 심의위원 모두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특히 이번 창작산실에서는 예년에 공연했던 장르와 형식이 다른 작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품이 예년의 창작산실에서 주로 공연되었던 장르와 작품의 공연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실연심의의 과정에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전통예술분야) 실연심의에 참여한 여덟 작품은 각각 동시대성과 작품성, 예술성, 실험성이 고르게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출중한 작품을 평가함에서 있어서는 결국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작품 실연 계획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파악하는 것도 심의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전제로 해서, 무대 조명 음향 의상은 물론 홍보에까지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심의위원마다 여러 시각으로 작품을 다층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국은 공통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장르가 '전통예술'이기에, 공연무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전통예술로서의 콘텐츠적인 가치와 합목적성입니다.

작품마다 중시하는 기교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모두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작품이 더 많은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작품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실연 심의에 참여한 여덟 작품은 모두 작품의 가치적 측면에서 모두 개성이 있기에 동등하게 높았습니다. 연출 및 음악 구성, 영상과 조명디자인, 음향, 무대, 소품 등의 전체 무대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면서 이런 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살피면서 심의를 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순위는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마다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못한 작품이지만, 그 작품도 저마다 매우 훌륭한 공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다른 차원으로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모든 작품은 모두 전통을 보는 저마다의 시각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의 전통'으로 정착하면서 전통예술의 확산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정된 작품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 다지고 다져져서,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서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공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공연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작품이 앞으로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 일동